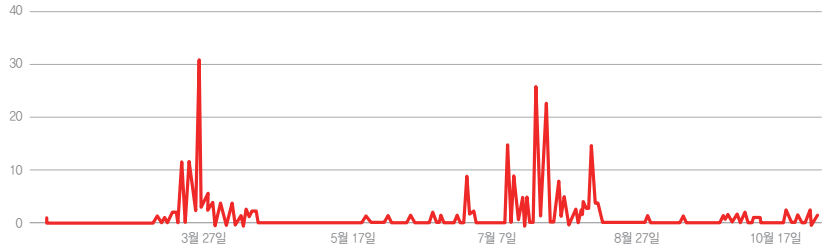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캄보디아 유통시장 변화 전망

캄보디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10월 30일 기준 캄보디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91명이며, 293명이 퇴원하여 완치율은 97.25%이다.



1월 27일 첫 코로나 환자(중국인)가 발생한 이후 캄보디아는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1차)와 6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2차), 두 차례 신규확진자 폭발기가 있었다.<그래프 참조>

전자의 경우 120명, 후자는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확진자의 41%와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해외 유입 확진자와 이들에 의한 내국인 감염이 복합된 경우다. 다급해진 캄보디아 정부는 3월 30일부터 ▲관광비자 발급 중단 ▲모든 입국 외국인의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자에 대한 검사 실시 등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면서 3월 31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귀국한 캄보디아인이나 외국인에 국한되고 있으며 해외 유입에 의한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캄보디아 유통시장 변화

첫 확진자 발생부터 1차 폭발기(3월 8일~4월 12일)까지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3~4월에는 전통 시장은 물론 대형 쇼핑몰에도 손님이 크게 줄었다.

오프라인 구매가 급감한 이 기간에는 신선 농산물과 국산 제품을 배달하는 스타트업 업체인 그로세델(Grocerdel)에 주문이 180%, 매출이 165% 증가하자 직원을 50%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대거 나온 미국·유럽과 달리 캄보디아가 감염 통제에 성공하면서 5월 이후 전통 시장과 대형 쇼핑몰에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손님들이 몰리면서 배달 수요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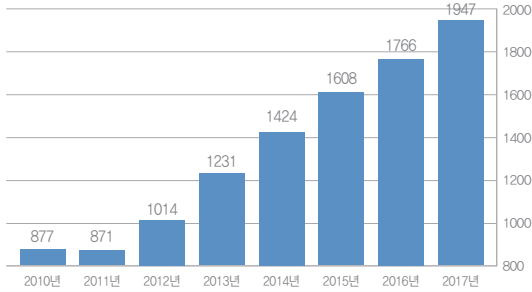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로 30만 명의 봉제공장의 종사자와 관광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구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와 업체가 월 70달러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실직자들이 잃은 급여만도 월 최소 7500만 달러에서 최대 9000만 달러에 이른다. 70달러를 뺀 순수실 급여만도 월 최소 5400만 달러, 최대 6900만 달러에 달한다.

대량 실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25%씩 증가했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올해 감소할 전망이다. <표1 참조> 봉제업은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것에 맞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업의 경우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최소 3년, 최대 5년이 걸릴 것으로 캄보디아 관광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 감소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 ① 구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알람
- ② <https://tradingeconomics.com/cambodia/disposable-personal-income>
- ③ unctad.org/news/cambodias-digital-startups-help-blunt-economic-impact-covid-19
- ④ www.phnompenhpost.com/business/hyundai-engineering-secures-right-build-new-aeon-mall-project
- ⑤ Aeon 홈페이지
- ⑥ 사진 : web.facebook.com/DoriDori.BKK1
- ⑦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nutrilatt-baby-formula-iron-deficient>

표1 [캄보디아 1인당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라 고가 상품 판매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지만 중저가 구매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체 영역에서 판매가 감소했지만 특히 차량과 부동산 부문은 심각하고 식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수입(對캄보디아 수출) 변화

올해 8개월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총 3억 5254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1%가 감소했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의 경우 조제분유, 라면, 소주, 고추장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 조제분유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7.1% 증가한 331만 달러, 라면은 127% 증가한 442만 달러, 소주는 115.7% 증가한 52만 달러, 고추장은 253% 증가한 29만 3700 달러를 기록했다.

조제분유 수출 증가는 지난 5월 초 싱가포르 누트리랏(Nutrillatt) 분유 논란의 반사이익과 한국산 조제분유의 적극적인 마케팅 결과로 추정된다. 5월 초 누트리랏 분유를 먹은 일부 어린이들이 철분 결핍성 빈혈 증세를 보이면서 수혈까지 받게 되자 해당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8월 30일 내무부는 “누트리랏의 6개 제품을 싱가포르 소재 유로핀스(Eurofins) 식품검사센터에 보내 분석한 결과 본래 생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영아용 분유에는 각각 100g당 472~2286mg의 철분이 함유되어야 하지만 누트리랏 제품에는 100g당 25mg 밖에 없었다”고 발표하고 동 제품의 시판을 금지하는 한편 회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장기간 휴교령과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진 것이 상대적으로 한국산 라면과 소주 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라면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된 약 7개월간의 휴교령으로 라면의 주 소비층인 학생들이 집에 머물며 라면을 대량 소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소주 브랜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순하리’와 진로하이트의 ‘진로소주’, ‘참이슬’이 주 판매 브랜드이며 ‘시원’, ‘한라산’ 등도 진출한 상태다. 특히 딸기와 청포도, 자두 등 과일 맛이 첨가된 다양한 소주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가격이 병당 2달러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판의 경우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소주도 있음) 맥주가 주류 시장을 장악하고 캄보디아에서 현지인들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맛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한국 - 캄보디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 %

	대캄보디아 수출		대캄보디아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0년	352,542	-24.1	218,514	-5.1	134,028
1월	46,439	-21.1	31,732	-14.9	14,707
2월	97,671	-4.2	62,885	-2.7	34,786
3월	147,895	-6.6	93,859	-1.2	54,036
4월	183,471	-15.9	114,205	-5.4	69,266
5월	215,167	-23.6	140,036	-1.6	75,131
6월	261,532	-23.0	162,063	-2.0	99,469
7월	311,059	-24.0	187,815	-6.6	123,244
8월	352,542	-24.1	218,514	-5.1	134,028
2019년	696,530	5.5	335,922	6.8	360,608

출처 : 한국 관세청



고추장은 떡볶이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프놈펜 시내에 지난 7월 문을 연 즉석 떡볶이·치킨 뷔페인 도리도리(Dori Dori)의 경우 주말에는 120석이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도리도리의 주 고객은 학생과 젊은 층으로 도리도리의 매니저에 따르면 일부 손님들은 국물을 조리하지 않고 계속 부어 사부사부처럼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떡볶이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익숙한 메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식당이 호황을 이룬 비결이 1인당 7.5달러에 떡볶이와 치킨을 무제한 먹을 수 있다는 가성비 때문인지, 아니면 떡볶이를 선호하는 추세 때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필자가 방문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았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가족은 4번이나 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말했고, 이 매니저도 재방문 고객이 많다고 말해 떡볶이·치킨 뷔페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떡볶이가 인기를 끌면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한국산 고추장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아 보인다.

막걸리 수입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르서울’, ‘대장금’, ‘본가’, ‘도새기’, ‘식객’ 등 고급 한식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

코로나19 사태로 비중이 커진 전자상거래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견이 없지만 올해처럼 빠르

게 성장하지는 불확실하다. 아직도 캄보디아에서는 ‘눈으로 보고 사’는 오프라인 쇼핑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놈펜시(市)에 쇼핑몰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쇼핑몰 건설은 지방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0월 1일 시하누크빌시(市)에서 대형 쇼핑몰인 프린스몰이 소프트 오픈했다. 5층, 연면적이 5만㎡인 프린스몰은 작년 12월 오픈한 퓨리타임즈스퀘어(4층, 연면적 1만3000㎡)에 이어 두번째 대형 쇼핑몰이다. 작년 12월 태국에 접한 중소도시인 포이펫시(市)에도 태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빅C의 캄보디아 1호점이 개장하는 등 프놈펜시(市)에만 집중됐던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일정 지역에 다수점을 동시에 출점시킴으로써 경쟁사의 출점을 억제하는 도미넌트 전략에 따라 이미 프놈펜시에 2개의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본 이온몰이 지난 10월 7일 3호점 <사진 조감도>을 착공했다. 3호점은 연면적 약 18만㎡로 아세안에 진출한 이온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완공시 프놈펜시 남쪽의 상권을 장악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온몰의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2개점 운영)를 비롯하여 베트남(6개점 운영), 인도네시아(3개점 운영) 등의 아세안 사업의 2분기 영업수익은 5600만 달러(7.0% 감소), 영업이익은 1100만 달러(16.5% 감소)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이온몰 현황]

	위치	연면적	투자액	시공사	완공
1호점	짬까문구(區)	6.8만㎡	2.5억달러	GS건설	2014년
2호점	센숙구(區)	8.5만㎡	1.2억달러	현대엔지니어링	2018년
3호점	민체이구(區)	17.4만㎡	2.89억달러	현대엔지니어링	2022년 예정